직원 임금 동결로 7,600만원 모아 中企 포상

광주테크노파크의 기업 사랑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광산업체 등 지역 기업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7천만원이 넘는 상금까지 수여해 화제다.

상금 재원은 직원 임금 동결과 일부 반납된 원장 급여였고, 대상 기업은 100억원 이상 매출 실적을 올린 기업을 비롯, 고용 창출,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광산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들이다.

테크노파크는 4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글로벌광통신·우리로광통신·휘라포토닉스 등 광산업체 3곳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기 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 확대로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테크노파크는 또 이날 첨단과학산업단지·하남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 및 증가율이 높은 기업 8곳을 발굴, 2천800만원에 이르는 상금을 지급했다.

〈남헌일 원장〉

현대하이텍은 지난 2007년(54명)보다 40.74% 늘어난 22명을 채용, 고용 창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태정산업도 고용 증가율이 지난 2007년에 비해 87.09%가 늘어난데다 현재 채용 인원도 116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 최우수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외 테크노파크는 입주 기업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크게 신장됐거나 경영 혁신을 이룬 9개 업체에게도 각각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탑알앤디는 매출액의 31.7%에 이르는 연구 개발 투자 및 13건의 특허 등록 및 12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성과를 높이 샀다.

또 광통신부품업체 포미㈜는 매출신장 및 고용창출 분야에서, ㈜오이솔루션과 ㈜코셋은 각각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4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올린 점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테크노파크는 7천600만원에 달하는 이날 상금을 올 초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원장 급여 10% 반납과 직원들 임금 동결 등을 통해 마련했다.

광주테크노파크 남헌일 원장은 "지역 광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관련 연구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훈민정음 도자기에 새겼어요 한글날을 닷새 앞둔 4일 소공동 한국도자기 롯데 호텔점에서 관계자들이 훈민정음 서문이 새겨져 있는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로 등 8개사 이달 공모 청약

10월 한달 동안 진로를 비롯한 8개 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진로에 대한 청약이 실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15일부터 이틀간은 파이프 전문업체 스틸플라워에 대해, 19일부터 이틀간은 리튬일차전지 제조업체인 비츠로셀에 대해 청약이 이뤄진다.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청약은 20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약은 21일부터 각각 이틀 동안 진행되고 이달의 신규상장 공모청약 기업들 중 예상 공모 총액이 8천987억원으로 가장 큰 포스코건설의 청약 역시 21일부터 2일 동안 진행된다.

또 28~29일에는 크레인 제조업체 디엠씨와 의약품 개발업체 진매트릭스에 대한 청약이 있을 예정이다.

공모 기업들 중 진로와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고, 스틸플라워를 비롯한 나머지 기업들은 코스닥시장에 자리 잡게 된다.

이들 8개 기업의 예상 공모 총액 합계는 1조8천873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10월 신규상장 공모청약 일정

회사명	시장구분	청약일	대표주관사	예정가(원)	공모총액
진로	유가증권	8~9일	삼성	45,000~50,000	6,480 *
스틸플라워	코스닥	15~16일	미래에셋	17,500~21,500	306 *
비츠로셀	코스닥	19~20일	현대	6,700~8,000	214 *
한국전력기술	유가증권	20~21일	동양종합금융	21,600~24,400	1,651 *
한국지역난방공사	유가증권	21~22일	삼성	36,900~45,100	1,068 *
포스코건설	유가증권	21~22일	대우	100,000~120,000	8,987 *
디엠씨	코스닥	28~29일	미래에셋	7,500~8,600	56 *
진매트릭스	코스닥	28~29일	삼성	11,000~14,000	110 *

※ * 표시 부분의 단위은 억원. 공모예정 가격 범위의 하한선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간 증시 포커스

전력·철강·제약주 성과 기대 지지선 확인후 저가매수 하라

지난주 세계 3위 선사인 CMA CGM의 유동성 위기 소식에 국내 조선주와 해운주가 급락세를 나타냈다. 문제는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그 여파가 단순히 조선, 해운에만 그치지 않고 주식시장 전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일부 업종에 국한될 수 있는 악재에 대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국내 주식시장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투자 심리 또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3/4분기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실적 개선 추이가 오히려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지표도 그 동안의 호조세 일색에서 벗어나 변화의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8월 국내 산업생산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향후 경기 개선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소비자 기대지수나 시카고 PMI(구매자관리지수) 등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러한 시각변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만 기다리는 천수답 장세의 성격이 다분한 만큼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이후 외국인 매수세 둔화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실적모멘텀의 변화, 경기개선 모멘텀의 변화, 수급 모멘텀의 변화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당분간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주도 종목군중 단기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만큼 이번 주는 주가가 밀릴수록 이들 주식군들의 급반등을 호시탐탐 노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도주인 IT와 자동차는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강도에 따라 재 매수시기를 저울질해 나가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 반면에 원화강세로 인해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원자재 수입비중이 큰 유틸리티(전력·가스)·철강·음식료·제약 관련 주식과 외화부채 부담이 큰 은행과 항공, 건설 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조정을 이용한 저가매수가 바람직해 보인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光銀 "LED TV 드립니다"

41주년 고객 사은행사

광주은행은 4일 "창립 41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10일까지 41일 동안 고객 사은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은행사는 거치식 예금 500만원, 적립식 10만원, 대출금 5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거나 신용카드에 새로 가입한 고객 가운데 행사 마지막 날 기준 금융자산이 총 4천100만원 이상이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10월 한달 평균 잔액이 41만원 이상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12일 추첨을 통해 으뜸상 1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LED TV, 기쁨상 2명에게 냉장고(150만원 상당), 감사상 3명에게 드럼세탁기(80만원 상당), 행운상 35명에게 광주은행 기프트카드(5만원)를 준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고병일 부부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